

목포대·순천대, '의과대학 소재지' 놓고 또 갈등

교육부 "통합신청서에 대학본부 명시" 대학·도, 본부·의대 분리 배치 협약 양 대학 모두 의대 유치 원해 대립 이달말까지 결론내야 내달 정원 배분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의과대학 소재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목포대·순천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양 대학에게 최종 대학통합신청서에 통합 대학본부 위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두 대학은 지난해 말 전남도와 3자 업무협약에서 통합 대학본부와 의대를 분리 배치하기로 했다. 즉, 대학본부 소재지가 아닌 곳이 의대 소재지로 자동 결정되는 셈이다.

양 대학 모두 지역 파급력과 선호도가 큰 의대 유치를 바라고 있어 대학본부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순천대의 경우 지난 1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대-대학본부 소재지 선호도 관련 의견을 묻은 결과, 정원 100명을 육성할 수 있는 의대를 순천에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도는 의대 위치와 무관하게 목포와 순천에 각각 국립대 병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수천억원의 예산 등 현실을 고려하면 자칫 의대가 있는 대학에만 국립대 병원을 신설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거세게 깔려 있다.

양 대학 총장은 조만간 만나 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대안 도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

다. 양 대학은 교육부가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을 확정하는 만큼, 늦어도 이달 말을 마저 선으로 설정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순천대 관계자는 "양 대학 모두 의대 유치를 선호하고 구성원 또한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보니 쉽사리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순천과 목포 중 어느 한 곳에만 의대가 설립되면 탈락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립의대 50명, 공

공의대 50명으로 정원을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우리나라 의대를 두고 있는 대학들은 한 개의 의대를 하나의 소재지에 두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최근 양 대학과 가진 회의에서 대학 통합을 성사시킨 뒤에 다시 대학본부와 의대 소재지를 정하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이 현실화된 만큼 양 대학은 서둘러 통합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향후 의대 신설, 병원 설립 등 절차가 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달 말까지 연장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지급비율 70% 市·道, 중동사태 비상경제대응TF 가동 물가·수출·에너지가격 민생 안정 총력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키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 4월 말까지 지급키로 했다.

기존 기준 금액인 1당 1천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해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1당 1천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1당 1천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1당)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1당 188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전남도가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했다.

광주시는 전남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응 전담팀(TF)'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민생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링단을 통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생필품 가격 동향을 월 3회 정기 점검한다.

또 유가 상승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협력해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선다.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석유판매업소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전남도는 전남 황기연 도시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한 '비상경제 대책 TF' 점검회의를 열어 분야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경제 TF를 중심으로 분야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군 물가 종합 대응 모니터링 강화와 유관기관 합동점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기업 수출바우처 지원, 수출기업 피해 상황 모니터링과 기업 물류비 지원 검토, 위기대응 사업 연계·지원과 기업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1면 '더 꼬인 무안공항 재개항...'서 계속

그러나 최근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진행한 참사 잔해물 재조사 및 잔해 보관 개선 작업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돼 무안공항 재개항 논의는 일시 중단됐다.

실제 지난 8일까지 진행된 작업에서 희생자 중 한 명의 정강이뼈를 비롯해 인골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이 발견됐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4개와 대형 봉투 68개 분량의 유류품이 추가 수습됐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수습과 부실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국토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발표된 감사원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는 여객기 참사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의 설치 이유가 '공사비 절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규정에도 어긋난 기준 미달의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 이후 사고 직전까지 수차례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여행업계의 하계 여행 수요 대응을 위해 7월 재개항을 목표로 설정했던 전남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책임이 속속 확인되는 상황에서 유가족 협력이 표류할 경우 하반기 재개항 또한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무안공항 재개항을 위해서는 정부의 유가족 협력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관계 부처가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남도는 ▲사고조사 조속 완료·결과 공개 ▲행정상 과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 재개항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속한 무안공항 재개항을 위해서는 유가족이 요구해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진실된 사죄 등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며 "유가족의 안전한 치유와 무안국제공항의 안전한 재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광주시가 전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이야기' 행사에 참석해 통합 특별시 발전 전략과 통합 이후 변화상에 대해 지역 대학생들과 공감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통합은 청년 위한 새로운 성장 발판"

姜시장, 조선대서 통합 공감토크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역 대학생들과 만나 광주·전남 통합과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는 11일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광주시가 전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이야기' 행사를 열어 통합특별시 발전 전략과 통합 이후 변화상에 대해 지역 대학생들과 공감토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통합특별시의 미래 주역이 될 지역 대학생·청년들의 생각과 질문을 직접 듣고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강 시장을 비롯해 강희숙 조선대학교 부총장,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통합에 대한 정부 특전(인센티브) 등을 설명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지역 산업과 일자리, 생활 환경에 가져올 변화를 소개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 청년 지원정책 재정 지원, 인제 고용 지원 및 촉진 등 청년을 위한 주요 특례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청년 일자리 특별법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대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펼치고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인(In) 서울'이 아닌 '인(In) 광주·전남'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광고.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면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층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구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수렴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발전소의 명칭	우주별2호, 파워2호, 빛고을2호, 하늘2호, 금빛2호, 장수2호, 이슬2호 태양광발전소	
발전소의 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507-39, 507-118, 507-121, 507-90, 507-12, 507-119, 507-98, 507-97	
발전소의 면적	우주별2호 (0.83335㎡), 파워2호 (0.8389㎡), 빛고을2호 (7.8724㎡), 하늘2호 (3.71482㎡), 금빛2호 (4.31156㎡), 장수2호 (0.99396㎡), 이슬2호 (2.4155㎡)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의 내용	설비용량	우주별2호 (2.991.6kW), 파워2호 (2.991.6kW), 빛고을2호 (2.991.6kW), 하늘2호 (1.803.6kW), 금빛2호 (1.803.6kW), 장수2호 (0.993.96kW), 이슬2호 (1.16.1kW) 태양광발전소
	사업개시예정일	2029년 04월 01일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사업 운영기간	2029년 04월 01일 ~ 2059년 04월 01일 (사업개시일로부터 30년간)
	우주별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파워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빛고을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하늘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금빛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장수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이슬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의견제출 기간	2026년 03월 12일 ~ 2026년 03월 18일 (공고일로부터 7일간)	
의견제출 방법	전화) 02-556-1504 FAX) 02-556-1502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판매
-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